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조 정 남 (고려대학교)
(cncho@korea.ac.kr)



국문요약

일본은 천황제가 확립된 명치유신 이후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민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황을 ‘親’, 국민을 ‘臣’으로 하는 가족국가관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민족론’을 창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국주의세력화 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타민족집단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받아드리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단일민족론에 대신하여 제국주의 특유의 민족이론인 ‘복합민족론’, ‘통합민족론’등의 다양한 제국주의 민족론을 통하여 그들 제국 내에 새롭게 편입된 식민지 민족들을 새로운 ‘일본 민족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 후 1945년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단번에 제국주의민족이론을 벗어던지고 다시 그들 고유의 황국사관에 입각한 ‘단일민족론’으로 회귀하면서 전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나섰다.

일본의 재외 일본인(일제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도 그들의 전통적인 민족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일민족론이 지배하던 전전의 천황제 가족국가 시대에 이뤄진 해외 이민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지만 몸과 마음은 언제나 천황가의 신민이어야 한다는 ‘천황 신민론’의 입장에서, 1945년 패전 이후로는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 일단 해외에 나갔으면 그곳 현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입국 중심주의’의 입장을 강조하는 등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유연하게 펼쳐기도 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남미 특히 브라질 등의 일계 후손들을 일본으로 불러드려, 이들을 부족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일제인 활용의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고 있다.

주제어 : 재외 일본인, 일제인, 일제인 정책, 재외 일본인 정책, 단일민족론, 복합민족론, 천황신민론, 현민주의, 수입국 중심주의

I. 머리에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재외동포사회의 형성과정과 그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을 분야별로 분석하려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민족정책의 맥락 속에서 현대일본의 재외동포정책을 규명함은 물론, 이에 더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일본의 장, 단기 대응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일찍부터 그들이 처한 국가적인 상황과 시대상황에 맞는 정교한 민족정책 가동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들을 합리화하고 또 이들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중요한 방책으로 사용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유연한 민족정책을 통해 일본은 그들의 정치체제와 정치행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대내외 정책의 합리화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천황제가 확립된 명치유신 이후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민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황을 ‘親’, 국민을 ‘臣’으로 하는 가족국가관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민족론’을 창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895년 청일전쟁, 러일전쟁 후 대만과 한반도 등을 복속시키기면서 본격적인 제국주의세력화 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타민족집단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기존의 단일민족론에 대신하여 제국주의 특유의 민족이론인 ‘복합민족론’, ‘통합민족론’등의 다양한 제국주의민족론을 통하여 제국 내에 새롭게 편입된 식민지 민족들을 새로운 일본민족 화하려 했다. 그리고 그 후 1945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는 단번에 제국주의민족이론을 벗어던지고 다시 그들 고유의 황국사관에 입각한 ‘단일민족론’으로 회귀하면서 전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나섰다(조정남 1999 참조).

당대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외 일본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도 그들의 전통적인 민족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일민족론이 지배하던 전전의 천황제 가족국가시대에 이뤄진 해외 이민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해외에 나가 있지만 몸과 마음은 언제나 천황가의 신민이어야 한다는 천황신민론의 입장에서, 그리고 1945년 패전이후로 접어들면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도 수입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단 해외에 나갔으면 그곳 현지정책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수입국 중심주의의 입장을 강조하는 등으로 변화를 현실적 상황에 대처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유연하게 펼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재외 일본인들의 현황을 살피고, 이어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가 펼쳐온 재외 일본인들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이어 각 부문별로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을 살피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들의 민족정치론의 일환으로서의 재외 일본인정책의 내용과 그 지향성을 찾아보려 한다.

II. 재외 일본인의 현황

2012년10월 현재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영토 이외의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일본인'(일본에서는 이들을 '在留邦人'으로 부른다)¹⁾은 124만9,577명으로 이는 전년보다 6만7,020명 증가했고, 또 최근 5년간에는 13만2,584명이 늘어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체류자는 83만7,718명(재외 일본인 전체의 67.0%)로 전년보다 5만5,068명(7.04%)이 증가됐고, 증가한 지역은 아시아가 30,226명, 북미가 18,000명, 서구가 12,042명으로 아시아의 증가분이 장기체류자 전체 증가분의 55%를 차지한다. 한편 영주자는 411,859명으로 전체 재외 일본인의 33%를 차지, 전년보다 약 12,000명(1.99%)증가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이 37.84로 계속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 순위로 보면 아시아가 30,226명(28.97%)으로 전년 증가분의 약3배가 증가했다, 북미가 18,000명(37.84%), 서구가 12,042명(15.60%), 대양주가 5,122명(8.03%) 등의 순이다.

〈표 1〉 연도별 지역별 해외일본인 수 추이

연도 \ 지역	아시아	대양주	북미주	중 미	남 미	서구	동구	중 동	아프리카	계
1968	12,798	2,337	81,385	2,415	210,503	11,966	965	1,224	1,692	325,285
1969	16,955	2,318	85,620	3,506	212,802	15,982	1,232	2,043	2,197	342,655
1970	16,790	2,404	52,289	3,680	196,172	13,198	783	2,214	2,460	290,050
1971	21,234	2,807	87,298	3,738	184,519	19,426	1,380	2,468	3,355	326,225
1972	23,407	3,284	93,301	3,846	183,819	23,813	1,494	2,631	3,469	339,064
1973	28,937	3,581	103,404	3,768	184,030	28,911	2,055	3,644	4,708	363,038
1974	33,869	4,102	111,325	4,218	181,731	32,917	1,948	3,564	4,651	378,137
1975	37,298	4,240	118,404	4,817	184,592	34,837	1,931	5,650	4,848	396,617
1976	39,768	4,485	124,050	5,200	184,688	36,489	1,842	7,150	5,762	409,398
1977	41,354	4,698	126,201	5,329	185,069	36,976	1,882	11,788	7,013	420,310

1) 일본 정부는 '해외 일본인'(在留邦人)이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1) '재류방인'-이는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일본국적을 가진 자(장기체류자 및 영주자) 2) '장기체재자'-이는 첫째, 3개월이상 해외체재자로 영주가자 아닌 일본인, 둘째, '장기체재자'을 '본인' 및 본인과 동반하여 체재하는 '동거가족'의 두가지로 분류. 이 분류는 신고된 거주계의 분류로,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3) 일본국적을 보유한 영주자 - 이는 장기체류의 한 방편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영주의 의사가 없는 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장기체재자'로 포함

지역 연도	아시아	대양주	북미주	중 미	남 미	서구	동구	중 동	아프리카	계
1978	44,366	4,922	123,671	5,629	183,823	42,010	2,189	14,702	9,255	430,567
1979	48,740	5,418	126,663	5,664	182,878	43,067	2,429	10,884	9,730	435,473
1980	52,400	6,187	133,460	5,907	178,336	48,218	2,414	10,289	8,161	445,372
1981	56,109	7,162	140,216	6,260	168,016	51,273	2,001	12,379	7,457	450,873
1982	58,939	7,898	143,974	6,509	168,185	55,412	1,925	13,077	7,761	463,680
1983	60,413	8,516	148,934	5,619	166,763	59,153	2,179	12,417	7,879	471,873
1984	59,625	8,990	156,447	5,266	163,966	62,651	2,217	11,182	7,824	478,168
1985	58,432	9,538	165,248	5,299	154,503	68,106	2,109	9,842	7,662	480,739
1986	60,374	10,075	179,343	5,546	151,075	74,166	2,294	8,143	6,965	497,981
1987	62,933	11,325	194,839	5,823	147,873	80,534	2,023	6,524	6,444	518,318
1988	70,074	13,905	211,972	5,393	143,066	90,331	2,082	5,576	5,968	548,404
1989	75,922	18,103	233,672	5,539	138,427	102,312	2,065	5,103	5,792	586,972
1990	83,916	21,398	258,254	5,609	130,565	109,713	2,220	5,792	5,491	620,174
1991	93,274	25,218	281,224	5,766	127,484	118,642	2,319	4,082	5,026	663,074
1992	101,229	27,718	280,529	5,798	123,560	128,379	2,412	4,672	5,046	679,379
1993	110,140	28,149	277,775	6,237	120,183	132,335	2,566	4,780	5,375	685,579
1994	120,565	30,233	279,920	7,055	119,825	118,984	3,102	4,904	5,267	689,895
1995	136,581	33,701	289,077	7,517	116,859	128,239	3,230	5,158	7,866	728,268
2005	260,747	72,871	387,585	8,700	89,701	162,643	7,132	7,062	6,069	1,012,547
2006	277,735	78,099	414,552	8,780	88,662	174,138	7,656	7,685	6,351	1,063,695
2007	287,157	82,491	422,116	9,021	85,974	174,713	8,002	8,845	7,317	1,085,671
2008	292,632	86,553	463,532	9,292	85,750	180,742	8,051	9,754	7,658	1,116,993
2009	302,469	92,189	437,308	9,546	85,009	180,622	7,916	9,832	7,888	1,131,807
2010	312,767	92,186	442,900	9,784	84,831	177,380	7,823	9,695	7,963	1,143,357
2011	331,769	95,198	454,835	10,167	82,029	182,836	8,112	9,452	8,102	1,182,557
2012	362,022	100,320	472,835	11,112	81,754	194,878	8,783	9,606	8,236	1,249,577

출처: 『海外在留邦人數調査統計』(日本,外務大臣官房領事移住部(政策課)編). 각 연도별 통계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1989년부터는 남극거주 인구가 전체수에 포함되어 있다. (1989년-37명, 90년-37명, 91년-39명, 92년-36명, 93년-39명, 94년-40명, 95년-40명, 2005년-37명, 2006-37명, 2007년-35명, 2008-29명, 2009-10년-28명, 2011년-30명, 2012년-31명 등)

또 국가별로는 미국(410,973명, 약33%), 중국(150,399명, 약12%), 호주(78,664명, 약6.3%), 영국(65,070명, 약5.2%), 캐나다(61,854명, 약4.9%), 브라질(55,927명, 약4.5%), 타이(55,634명, 약4.5%)순으로 이들이 전체의 7할을 초과하고 있다.日本外務省領事局政策課 2013, 3-4).

Ⅲ. 재외 일본인 정책

1. 전전 이민정책

일본은 해외에 자기 민족들을 많이 이주 시키고 있는 세계 유수의 이주 대국이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대표적인 노동자 수입국이 되었으나 196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명치 이래 거의 1세기동안은 해외로 자기 민족들을 이민 내보내던 대표적 이민 송출 국이었다.

전후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보다 돈벌이가 수월한 해외로 눈을 돌려 일본을 떠났다. ‘미국 이민’, ‘브라질 이민’ 등 일본에서의 생활고를 벗어나 해외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이뤄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明治, 大正, 昭和초기 까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북미 대륙 등으로 80여만 명의 일본인들이 해외로 떠났다.

일본은 오랫동안 외국과 인적교류의 문을 닫아걸고 있던 시기가 있었다. 幕藩體制가 성립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쇄국정책을 편이래 2백여 년간 일본인은 海外渡航이 금지되었다. 1854년 美日和親條約(神那川條約)에서 개국을 강요당한 일본은 4년 후인 美日修好通商條約으로 神那川, 長岐, 箱館 등 세 항구를 개방하고 일반 외국인들의 왕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때도 일본인들에 대한 해외 출국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1866년5월, 德川幕府는 ‘海外渡航指針’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의 改稅約書가 계기가 되어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때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수학 또는 상업을 위해 외국에 나가는 것 뿐 아니라 외국 선박에 근무하는 것과 또 외국에 고용되어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락했다. 이때 막부는 외국 선박에 일본인 水夫들의 승선과 在日外國인이 일본에서 고용한 일본인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인정, 일본인들의 해외 출국을 본격화 시켰다.²⁾

2) 1967년 幕府가 교부한 일본인들의 미국행 여권 103통 가운데 90통이 奉公人들의 것이었다(鈴木讓二 1992, 12).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인들의 해외 이민 앞선업도 나타났다. 미국 영사 관원이었던 반 리드는 자기가 발행하고 있던 신문지상에 구인광고를 내, 1868년3월(명치1년)에 하와이행 350명, 괌 행 42인의 이민을 모아 神那川 당국으로 부터 여권을 받아 외국으로 이들을 내보냈으며, 이것이 근대 일본에서의 최초의 집단적인 돈벌이 이민이라고 볼 수 있다(鈴木讓二 1992, 13).

명치 원년에 시작된 일본인들의 해외 이주는 초기 이민들이 현지 정착에 실패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상당기간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후 하와이 등에서 일본 이민에 대한 강한 요청과 국내정세의 변화로 해외 이주 금지정책이 풀렸다. 1883년에 호주에 37명의 이민을 새로 허가된 것을 계기로 하여 1884년4월23일 하와이에 일본인 출국에 관한 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와이로의 ‘官約移民’의 문호가 열리면서 조직적인 해외 이주가 시작되었다(鈴木讓二 · 若槻泰雄 1975, 53-4).

전전 일본인들의 해외 이주의 가장 큰 배경은 과잉인구 해소책과 관련되어 있다. 명치 초년의 3천만 명이던 인구가 명치20년에는 3천8백만, 연간 인구 증가 수가 20만을 넘으면서 인구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또 그 후 일본의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서 농촌의 분해가 가속화되고, 농촌의 유향 노동력과 도시의 실업자 증대가 동시에 일어났다. 당시 전국적으로 7-8명의 이민대리인들이 연간 1-2만 명의 이민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해외로 나가 돈벌이 하려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았기 때문이었다(鈴木讓二 · 若槻泰雄 1975, 74).

당시 일본인들의 또 하나의 해외 이주 배경으로는 명치정부의 유학 장려책이다. 1873년 명치정부는 학술연구를 위해 외국에 나가는 유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 문교, 공부, 개척사 등의 전문생도와 의술, 미술을 배우려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력을 면제시키는 등 이들의 유학을 장려했다.³⁾

명치기의 일본인 해외 이주에는 국제적인 환경도 크게 작용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서의 식민지 획득경쟁은 1886년 독일의 마샬 군도의 보호령 화, 1887년10월 불령 인도지나연방의 성립 등에 의해 거의 일단락, 군사력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 획득은 어렵게 되었다. 한편 1889년11월 스위스운하 개통 이래, 사탕, 홍차, 커피, 고무 등 서 유럽으로 향하는 농산물의 수출이 아시아 각지에서 증대했다.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식민지에서는 서유럽을 겨냥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다. 당시 인도인, 중국인들의

3) 1879년10월, 1889년1월의 법 개정에서도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징집면제는 계속 확대되었다. 때문에 징집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이민들도 상당수 있었다(鈴木讓二 · 若槻泰雄 1975, 529).

대대적인 이동은 이 때문이었고 이러한 이동은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만들어 새로운 계약노동자의 수요를 늘려갔다. 호주의 퀸즐랜드, 영영 피지군도 등에 일본인 이민이 송출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兒玉正昭 1992, 454-5).

〈표 2〉 일본인들의 전전 해외이민 현황(1868-1941)

지 역	국 가	돈벌이 이민	정주이민	합 계
남 미	멕시코	14,633	34	14,667
	브라질	180,360	8,625	188,958
	페 루	33,070	0	33,070
	알젠티	5,338	60	5,398
	파라과이	0	709	709
	기 타	1,959	158	2,117
	소 계	235,360	9,586	244,946
미 주	미 국	107,193	60	107,253
	하와이	231,206	0	231,206
	캐나다	35,777	0	35,777
	소 계	374,176	60	374,236
대양주	호 주	3,773	0	3,773
	필리핀, 괌	53,115	0	53,115
	기 타	35,433	0	35,433
	소 계	92,321	0	92,321
유 럽	러시아령	56,821	0	56,821
	기 타	7,980	0	7,980
	소 계	64,801	0	64,801
	합 계	766,658	9,646	776,304

출처: 鈴木讓二(1992, 262).

여기서 초기 일본인들의 해외 이민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이민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자. 브라질에서는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남부의 비옥한 적토지대에서 커피재배가 급속히 보급, 1870년경부터 1930년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2백만 명이 넘는 이민이 유입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이민은 1897년 東洋移民合資會社에 의해 시도 되었으나,

커피 값 폭락에 의해 출국이 중지 되었다. 브라질에의 이민은 1908년4월, 황국식민합자회사가 781명을 브라질 상파울로로 송출한 것이 최초다. 이후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브라질에의 이민 수는 점증하여 미국에서 1924년 排日移民法이 성립된 이후는 일본인 이민의 주류가 되었다(兒玉正昭 1992, 459).

1895년 ‘일-브라질 수호통상조약’으로 정식 국교가 수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브라질 이민 교섭이 있었으나 실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1908년 일본의 皇國殖民會社の 주선으로 제1회 브라질이민선인 ‘笠戸丸’이 일본인노동자 793명(계약이민 781명, 자유이민 12명)을 태우고 神戸를 떠나 1908년6월18일 브라질 산토스 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 제1회 브라질 이민도 준비의 불철저와 현지 적응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면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鈴木讓二 1992, 147).

그 후 ‘皇國殖民會社’가 상파울로 주 정부와 제2회 이민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인정치 않았다. 이는 황국식민회사가 이민보호법에 근거한 공탁금을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이 회사는 제1회 브라질 이민송출에서 적자를 내 경영이 악화됐던 것이다. 결국 제2회 브라질이민은 이민주선 회사를 竹村商館으로 바꿔 이민 906명이 ‘旅順丸’로 1910년5월 일본을 떠났다. 제2회 이민들은 현지 정착에서도 전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었다. 현지 브라질의 커피 작황도 좋고 이에 따른 이민 노동자들의 수입도 향상되는 가운데 竹村商館과 상파울로 주 정부와의 사이에 제3회 이민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이민회사도 이것과는 별도의 또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 하다가 1912년에 이민송출을 재개, 앞의 두 회사가 각각 1,400여 명씩 합계 2,844명을 브라질로 이민 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의 브라질 이민은 궤도에 올라 1914년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만4,886명을 송출시켰다. 1914년부터는 또 초청이민(자유이민)도 시작되어 이해 5월에 브라질에 도착한 제2雲海丸(竹村商館), 若狹丸(동양이민회사)에는 각각 57명, 72명의 초청이민이 승선하기도 했다(鈴木讓二 1992, 154-5).

1914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일본인들의 브라질 이민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왔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110명의 브라질이민들에 대해서 1인당 200엔 씩의 출국 비를 원조했고, 그 후에는 이민들에 대한 출국 비 전액이 정부에서 보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보조 조치 등에 힘입어 1934년에 다시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 규제로 문호가 좁아지기 까지 10만 명을 넘는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건너갔다. 이들 브라질의 이민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의 전부가 돈벌이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일계인들의 총수는 120만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 일계인 사회 중에서 최대 규모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1세가 11만 명, 2세가 45만 명,

3세가 50만 명, 4세 8만 명, 5세 2만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는 완전히 일계현지인들의 세대가 도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일계인 사회는 1990년6월의 일본 정부의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의 개정으로 일계2세의 일본에서의 定住비자가 처음부터 부여되면서 일본으로의 돈벌이 U턴 현상이 급증했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前山隆 1982 참조).

〈표 3〉 연도별 브라질 이민 수(1908-1941년)

연 대	이 민 수
1908 - 10	1,714
1911 - 15	13,371
1916 - 20	13,576
1921 - 25	11,349
1926 - 30	59,564
1931 - 35	72,661
1936 - 40	15,473
1941	1,277
합 계	188,985

출처: 鈴木讓二(1992, 168).

2. 전후의 이민정책

1) 전후 상황과 이민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는 민족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우선 일본은 명치기 이래 획득했던 많은 해외 식민지를 상실케 됨과 동시에 식민지 민족들은 민족독립을 되찾았음은 물론 제국주의기 일제에 의해 편입된 식민지 제국에 이주 해 살던 많은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협소한 일본 열도에 8천여 만명이 다시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이 처음으로 인구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이주의 필요성을 느껴 여러 나라로 이민을 내보내던 1880년대 후반의 인구가 4천만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전후 일본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섬나라 일본으로 되돌아 온 이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심각한 인구과잉에 대한 해소책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바로 이민의 재개였다. 그러나 일본은

종전과 동시에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국민들의 해외 이주나 해외여행도 점령군사령부의 규제아래 특정 공무 이외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무역행위 등의 상용으로 해외여행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10월 이후의 일이었다. 일본은 1949년5월2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人口問題에 關한 決議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것은 전후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민재개문제에 대한 최초의 의지표명이었다. 이 결의는 전후 일본의 인구대책으로 산업의 진흥, 산아제한, 그리고 해외 이주 등의 세가지 정책을 들고 있다.

「이민만으로 과잉인구를 해소하기는 곤란하나, 이민은 단순히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뿐 아니라, - 우리나라의 재건에 기여하는 것이 다대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이민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함과 더불어, 앞으로는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세계에 환영을 받고 또 세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이 되도록, 국민들이 처음부터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 우리민족이 문화의식이 높은 평화적인 민주국민이 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02).

전후 일본인 이민의 주된 대상지로 떠오른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그 동안 1924년의 이민법을 근거로 일본인 이민을 줄곧 배척해왔으나 이러한 배일사상은 제2차 대전 중 유럽전선에서 주로 일제2세에 의해 편성된 442연대 등의 활약 및 전후 점령정책에 대한 일본의 복종에 의해 크게 호전되어 갔다.⁴⁾ 미국의 일본인들에 대한 이민허가의 자극제가 된 것은 인종차별 철폐를 이상으로 한 국제연합 현장과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었다.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은 이들 국제적인 결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등으로 트루만 대통령도 1947년2월 의회에 보낸 특별교서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대해 귀화에서의 평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법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민에 관한 법률개정도 진전되어, 1952년12월24일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 성립, 이민에서의 인종차별이 일단 폐지되었다. 이 결과 1924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미국이민이 절대 금지되었던 일본인도 연간 185명의 입국이 새롭게 허가되었다. 미국 이민법에서 인종차별과 함께 국가별할당제도가 완전히 배제되기까지는(1965년 존슨 법에 의해 실현된다)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전후 미국의 일본 이민에 대한 태도는 대량이민 허용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전후 일본인들의 해외 이민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돌파구를 만들었다.

4) 1924년의 排日移民法에 대해서는 總合研究開發機構(1995), 제1장 ‘日美外交史における移民問題’ 참조

2) 대량송출 정책

전후 일본의 이민정책은 전전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자국민들을 해외로 송출하려 했다. 해외 이주가 과잉인구의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기획된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이민을 내보내려 하는 것은 당연했다. 1955년4월 외무성에 移住局이 설치되었을 때, 일본 각의에서는 일본 이민에 대한 국제정세의 유리한 진전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이민의 대량송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시책을 실시기로 방침을 정했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04).

해외 이주가 재개된 다음해인 1953년9월 외무성 歐美局 이민과는 ‘移民5個年計劃’을 입안했다. 이 계획은 5년간 총 송출수를 13,000명으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미 재외공관에 이민담당관 증파를 계획 하고 최종연도인 1957년에는 16명의 주재토록 계획되었다. 이민5개년계획이 입안된 다음 해인 1954년12월에는 같은 구미국 이민과에서 다시 ‘해외 이주 10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의 ‘이민5개년계획’, ‘해외 이주10개년계획’ 모두가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외무성 이주국은 1958년3월에 다시 수정된 ‘이민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한 송출 예정인원은 1959-1963 5년간에 10만1천명으로 계획했다.

3) 수입국 중심주의

일본은 과거 일본인 해외 이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주 대상국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일본 중심주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해외 이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기 위해 무엇보다 이민송출의 전 과정이 이민을 수입하는 ‘수입국 중심주의’원칙이 견지 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른바 ‘수입국 중심주의’의 실천 없이는 대량이민을 송출하는 것은 물론, 송출한 이민의 현지에서의 이민 생활 또한 성공키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수입국 중심주의’는 패전국 일본이 이민들을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였음은 물론, 이와 더불어, 전전 일본인들의 해외 이민이 일본의 국가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드린 여러 나라로부터 일본의 침략주의 적 야욕으로 이가 인식되었고, 또 전후 브라질에서의 현지와의 마찰을 야기 시킨 ‘神道聯盟事件’과 같은 일본중심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현지에서의 배일감정을 확대시켰던 역사적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09).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을 내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일본으로서는 우선 자국이나 자민족들의 이해보다는 일본인들을 받아드리는 이민 수입국의 입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입국 중심주의적 사고는 당시의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태도이기도 했다. 수입국 중심주의는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㉓ 무차별 이주

수입국 중심주의는 이민을 받아드리려는 나라나 지역이 있으면, 입지조건이나 생활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이민을 내 보내는 정책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 이민정책은 과잉인구 대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일본 이민을 받아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환경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이를 받아드렸던 것이다.

당시 일본 이민을 받아드리겠다고 하는 나라나 지역 대부분은 문화권으로부터 떨어진 미개발 지역이었던 것은 전전의 이민 과정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전전의 일본 이민사도 排日의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태였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 문화권으로의 입국은 금지 당했으며, 남미에서도 기후가 좋은 아르헨티나도 유럽 이민을 우선시 하고 일본인들에게는 문호가 좁았다. 대량으로 일본 이민을 받아드린 브라질도 차차 일본 이민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점차 원시림 지역으로 내 쫓기게 되었다. 때문에 일본 이민은 당시부터 벌써 남미에서도 가장 후진국이었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로 이주 선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17).

㉔ 동화주의

전전의 일본의 이민정책은 이민을 떠나 이주 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본인이라는 민족의식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이를 실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북미나 남미 등 어느 곳에서나 일본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일본어학교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이들 학교는 단순히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일본정신’을 교육하는 기구이기도 했다.

전전의 국가주의적 이민정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롭게 전후의 대안적인 이민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바로 ‘동화주의’였다.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면 하루 빨리 거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동화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현지의 일본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전의 이민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문화가 좋아서도, 일본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하루빨리 잊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보다 항구적인 현지 정착과 일본인으로서의 뿌리를 깊숙히 그 땅에 내리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지의 문화와 현지 주민들과의 공생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결사항인 것을 터득한 결과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의 이민집단들과는 달리 비교적 현지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인들과의 마찰도 적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나 공생의 정도도 다른 이민 집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일본인이민들은 거주국의 상당히 깊은 부분에 까지 뿌리내려 거주국 국민들과의 공존관계를 비교적 잘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일본인들의

거주국에서의 공존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전전부터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터득한 해외 이민 생활 지혜가 일본 이민들의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4) 영주사상

전후 일본 이민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민들에 대한 현지 영주사상(永住思想)의 강조다. 전전 일본의 해외 이민은 주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제 목적으로 본국으로의 귀국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영주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드물었다. 전전은 이주라고 하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주는 돈벌이와 동의어에 가까웠다. 하와이, 미국 이주로 돈을 모아 ‘금의환향’하는 것이 초기 일본인 해외 이주의 공통된 꿈이기도 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들이 現地化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도 일본의식을 그대로 간직 한 것은 천황국가 ‘君民의 義’, ‘國家의 倫理’와 용이하게 거리를 둘 수 없었던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귀화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았던 브라질에서 전전 일본 이민 19만 명 가운데 귀화한 사람은 겨우 5천명(약 2.6%)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일본인들의 歸巢意識과 일본인의식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요컨대 전전 일본인 이민들은 이민을 떠난 이후에도 언제까지나 명실공히 일본인이 아니면 안 되었고, ‘忠良한 日本臣民’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의 이민정책은 전전과는 내용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해외 이민자들은 해외에서 영주를 각오해야 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 동화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이주가 일시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가급적 이주국 현지에서 영주하는 명실상부한 이민 즉 영주이민으로 정책을 크게 바꾸어 가지 시작했다.

이러한 방침은 1960년대 ‘해외 이주자 모집요령’의 응모조건을 ‘이주국에 영주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명기 된데서 시작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965년도 말에는 출국운임은 정부의 보조가 아니라 대부로 바꿨고, 이 출국 비 대부계약의 전제가 된 이주자계약서에는 이주자의 책임 및 의무로서, ‘이주자는 入殖 후에는 현지에 영주, 이주국의 법령에 따라 현지사회에 동화하고, 또 자기의 직무에 전념, 이주국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기까지 하다. 즉 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국비의 대부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또 이주자 출국 비 지급기준(昭和48년5월9일 領移제24호)제2조에는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주자의 정의로 ‘일본국적을 가진 본방 거주자로 영주의 목적을 가지고 외국에 출국하는 사람을 말 한다.’고 되어 있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11).

㉑ 獻民主義

일본 이민은 우선 이주 국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이민 대상국을 일시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려야 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곳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민생활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다. 즉 이민들은 자기들의 단기적인 이해보다는 현지 수입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헌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이민자들의 태도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의 영주의무를 명기한 이주계약서 등에서, '이주자는 입식 후는 현지에 영주하고 영주국의 법령에 따라 현지사회에 동화, 자기의 직무에 정진, 이주 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치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지의 내용을 일관하여 견지해 왔다. 요컨대 이민은 수입국의 개발에 '獻身'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일본국의 이익은 전혀 그 모습을 내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민 당사자의 행복도 도외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일본인들의 만주로의 이민이 이른바 대일본제국의 국책의 제1선을 담당하는 '戰士'였다고 하면, 전후 이민은 '개발협력의 파이오니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입장이기도 했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12).

전전의 일본 이민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국국민'의 꼬리를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국들로부터 일본인배척의 구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전후 이민은 전전과 같은 국가주의적 배경을 가진 이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외에 분명히 하려한 하나의 표현으로 '永住移民' 내지는 '獻民主義'가 의미를 가진다. '獻民'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수입국 개발의 戰士로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단순한 이민성공을 위한 영주사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㉒ 국내 중점주의

이는 앞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민정책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문제의 개선이나 그 해결에 일차적인 기준을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해외 이주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이해에 따른 것이지 이민당사자나 또는 이주국의 이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후 이민을 재개하면서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해외 이민이 가지는 의미를 자국의 이해와 연관해서 강조해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에 해외 이민이 기여하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듯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해외 이민들이 이민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결코 일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당시

일본 정부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해외 이민은 일본의 경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113).

IV. 재외 일본인 정책의 내용

1. 방계 단체에 의한 지원

일본이 해외 일본인(일계인들을 포함)에 대한 지원책은 전전기의 직접지원의 형태로부터 전후에는 점차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바뀌가면서 이어져 왔다. 해외 이주 초창기 ‘官約移民’⁵⁾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외 이주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시책이었던 시기에는 해외 이주민들이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담당 관리를 직접 파견하기도 하고 정부 지원을 직접 행하기도 하는 등 해외 이주민들에게 대한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정부 차원의 해외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정부에 대한 의존심을 키우는 나쁜 타성을 만들 뿐 아니라, 이주 국 정부도 일본의 이러한 관여에 대해서 대단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여 배일적인 태도를 증폭시키기 까지 하는 등으로 부작용이 뒤따랐다.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해외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차 방계단체를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전후 해외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다.

1) 국제협력사업단

일본의 해외 이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기구가 국제협력사업단이다. 일본 국회는 개발도상지역 등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단법’을 1974년5월31일 제72회 국회에서 법률 제62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에 의해 동년 8월1일 ‘국제협력사업단’이 발족되었다.

5) 1885년(明治18년) 1월, 일본과 하와이 간의 이민조약 ‘日布移民条約’이 체결되어, 일본인들의 하와이 이민이 공식적으로 허가됐다. 이렇듯 일본 정부에 의해 알선된 이민을 ‘官約移民’으로 불러 졌고, 1894년 민간에 위탁되기까지 26회에 걸쳐 약30,000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

〈표 4〉 이민원조 개요

연 도 (소화)	이주진흥 총경비 (결 산 액)	종합소비자물가지수 (1952년을100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수정한 이주진흥 총경비 (1972년도의 평가)
1952 (27)	7,894	100.0	18,646
1953 (28)	167,817	106.5	385,476
1954 (29)	382,855	113.4	853,001
1955 (30)	620,990	112.2	1,391,018
1956 (31)	723,735	112.5	1,618,995
1957 (32)	842,716	116.1	1,854,818
1958 (33)	1,010,704	115.6	2,229,613
1959 (34)	1,261,373	116.8	2,767,452
1960 (35)	1,419,928	121.1	3,054,265
1961 (36)	1,776,579	127.5	3,707,720
1962 (37)	2,000,978	136.2	4,001,956
1963 (38)	1,706,800	146.5	3,237,780
1964 (39)	1,991,369	152.1	3,666,110
1965 (40)	1,575,870	163.7	2,718,376
1966 (41)	1,890,363	171.7	3,109,647
1967 (42)	2,072,034	178.5	3,267,598
1968 (43)	2,090,778	187.9	3,100,624
1969 (44)	2,188,283	197.9	3,026,395
1970 (45)	2,184,534	213.0	2,691,346
1971 (46)	2,591,460	226.0	2,855,789
1972 (47)	2,893,679	236.2	2,893,679
합 계	31,400,739	-	52,450,304

출처: 鈴木讓二외(1975, 622).

이 사업단은 종래 정부 차원의 기술협력을 실시해 오던 ‘해외기술협력사업단’과 이주 사업을 실시해 오던 ‘해외 이주 사업단’의 업무를 이어받고, 재단법인 ‘해외무역개발협회’ 업무의 일부를 추가 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설립,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위 정부베이스의 기술협력업무, 청년해외협력 활동 촉진에 필요한 업무(청년해외협력대

사업), 개발도상지역 등의 사회개발 및 농업 및 광공업의 개발에 필요한 관련시설의 정비, 중남미 지역 등의 해외 이주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했다.

전후 일본의 이주업무 취급기관은 그 동안 1954년1월에 설립된 (재)일본해외협회연합회(해협연)과 1955년9월 설립된 일본해외 이주진흥(주)(이주진흥)의 두 기관이 병존하다가 1963년7월 이 두기관을 합병하여 ‘해외 이주 사업단’으로 단일 화 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74년8월 ‘국제협력사업단’이 발족함에 따라 해외 이주 사업단은 여기에 통합되었다.

2) 해외 일계인협회

일본의 보다 직접적인 해외 일본인들의 단체는 1967년 재단법인체로 설립된 ‘海外日系人協會’다. 이 협회는 1957년 이래 매년 동경에서 ‘海外日系人大會’를 개최하여 일계인⁶⁾ 상호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해외교민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책 등을 공동으로 요청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대 해외 일계인대회에는 주로 해외 일계인 사회에서의 원활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본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학교의 교재제작에 대한 지원, 일본어 교사 파견 등을 요청했다. 뿐 만 아니라 해외일계학생들에게 모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본연수를 지원할 것과 해외 현지에 일본 정부의 주재원 수를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일계인들의 제반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도움을 줄 것 등도 요청했다.⁷⁾

그리고 해외 이민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정부가 방관 할 것이 아니라, 이주 사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외 이주자들의 출국경비를 삭감 내지는 보조하는 방도를 확충하는 등으로 해외 이주를 계속시킴으로서 해외 일본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정부가 앞장설 것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해외 일계인과 모국의 교류, 친선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외 일본기업과 海外日系人들과의 교류 증진은 물론 복지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 협회는 또 지속적인 해외 일계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海外日系人센타’를 설립하여 일계인들의 지원을 항구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제23회 대회, 1982/5/4-6) 하는 등으로 본국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대회 결의문을 통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日系人’이란 일본에서 해외로 본거지를 옮겨 영주를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및 그 자손인 2세, 3 세, 4세 등을 국적, 혼혈을 문제로 삼지 않고 일반적으로 ‘海外日系人’이라고 말한다. 해외 일계인협회 <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 (검색일 2014.09.01.).

7) 2013년 현재 총54회의 대회를 개최했다. 역대 대회의 내용은 <http://www.jadesas.or.jp/taikai/ayumi.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 2014.09.01.).

3) 해외일계신문방송협회

1974년 10월 8일 설립된 ‘海外日系新聞協會’는 해외의 일계 메스컴과 일본 신문 계와의 교류, 해외일계 메스컴 상호 간의 유대를 확대, 일계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설립당시의 참가사는 캐나다-大陸時報(토론토), 미국-시카고신문(시카고), 北米報知(시애틀), 北美每日新聞, 北米時事(샌프란시스코), 羅府新報, 加州每日新聞(로스앤젤레스), 하와이보지, 하와이타임스, 키크 텔레비, 케이스방송, 고보방송(호놀룰루), 멕시코-新日墨新聞(멕시코시티), 페루-페루신보(리마), 아르헨티나-라파라다보지, 亞國新報(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상파울로신문, 파우리스타신문, 일백매일신문(상파울로) 등 신문 16개사, TV 1사, 라디오방송 2사 합계 19개사였다.

이 협회도 매년 동경에서 연차총회를 개최 당해 연도의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해외 이민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일본에 대한 요망사항을 통일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日系人相談센터

해외 일계인협회가 외무성, 국제협력사업단의 협력을 얻어 1991년 7월 1일부터 ‘日系人相談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일본에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해외 일계인 노동자들이 일본 생활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털어주기 위한 상담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같은 일본인의 피를 나누고 있지만 해외 일계인들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오랫동안 일본사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일본생활에 적응키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노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본사회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털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센터의 설립목적이다.

2. 문화적인 지원

1) 일본어 교육

일본이 해외 일본인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지원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어 교육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어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들에게 일본인으로서는 자의식을 고양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거주국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마찰을 적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확충과 이에 대한 지원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기회를 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이해의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목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적인 성장이 두드러진 이 후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 일본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의 확보를 통한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의 확보 등의 이유로 일본 붐이 확산되어 갔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일본 붐과 더불어 일본어교육 열기 또한 대단한 세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볼 때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단순한 일본을 이해하려는 그곳의 일제인들 뿐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을 이해하려는 현지 민들에게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어 교육을 통하여 일본을 더욱 외부세계에 알리는 한편, 일본의식이 점점 쇠산 해 저 가는 해외 일제인 후손들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 이외에서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표에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총 473개에 이른다.

〈표 5〉 주요국가 일본어교육 현황 (A: 일본인학교, B: 보습 수업교)

지역				A	B	지역				A	B	지역				A	B
아시아	인도	3	3	북미	오레곤		1	중남미	엘살바도르		1	구주	핀란드		1		
	인도네시아	4	3		캘리포니아	1	11		과테말라	1	프랑스		3	17			
	베트남	2	1		캔자스		1		코스타리카	1	벨기에		1	1			
	싱가포르	4	1		켄터키		3		도미니카		1		포르투갈		2		
	스리랑카	1			코네티컷	1	1		파나마	1			룩셈부르크		1		
	타이	3	3		콜로라도		2		온두라스		1		체코	1			
	대만	3	1		사우스캐롤라이나		2		멕시코	2	3		헝가리	1	1		
	한국	2	1		노스캐롤라이나		3		베네주엘라	1			불가리아		1		
	중국	14	7		조지아	1	2		아르헨티나	1			폴란드	1			
	네팔		1		텍사스		6		에콰도르	1	2		루마니아	1			
	방글라데시	1			테네시	1	2		콜롬비아	1			소계	34	67		
	파키스탄	2			뉴저지	3	3		칠레	1			아프리카	이집트	1		
	필리핀	1	1		뉴멕시코		1		파라과이	1				에티오피아		1	
	말레이시아	4	1		뉴욕	1	4		브라질	7	3			가나		1	
	미얀마	1			네바다		1		페루	1				케냐	1		
	라오스		1		네브라스카		1		볼리비아		1			잠비아		1	
	소계	45	24		하와이		2		소계	17	11			짐바브웨		1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4	9	플로리다		3	구주	아일랜드		2	수단			1			
	뉴질랜드		4	펜실베이니아		3		영국	6	9	세네갈		1				
	파푸아뉴기니		1	메사츄세츠		2		이탈리아	3	4	탄자니아		1				
	소계	4	14	미시간	1	3		오스트리아	1		튀니지		1				
				미주리		1		네덜란드	2	4							

지역			A	B	지역			A	B	지역			A	B	지역			A	B
북미	알래스카		1		미네소타		2			그리스	1				나이지리아	1			
	알라바마		4		루이지애나		2			스위스	2	2			남아공	1			
	아리조나		1		버즈니아		3			스웨덴			2		모로코			1	
	아이오아		1		미네소타		2												
	아칸손		1		워싱턴		3												
	위스콘신			1	워싱턴DC		1			우크라이나		1			알제리아	1			
					버즈니아		3			세르비아-몬테레그로	1				코트지브알			1	
					미시시피		2			러시아	1	1			리비아			1	
	일리노이	1	2		캐나다		10			스페인	3	2			소계	5	11		
	인디아나				사이판					덴마크					중동	아랍연방	2		
																예멘		1	
																이라크	1		
																이란	1		
																오만		1	
																카달	1		
																쿠웨이트	1	1	
																사우디아라비아	3	1	
																시리아		1	
																터키	2	1	
북미	웨스트버지니아		1		괌		1			독일	5	14			총계				
	오하이오		4		소계	10	111			노르웨이		1				129	244		

출처: 海外子女教育振興會(<http://www.joes.or.jp/gaikoku01.htm>)(검색일2014.8.7)

2) 「라디오 일본」

이는 NHK가 해외 청취자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단파에 의한 일본 유일의 국제방송이다. 이는 1935년(소화10년) 방송을 개시한 이래 해마다 기구를 늘려가면서 일본 소개와 국제친선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인 내지는 장기체류 일본인들에게 일본의 소식을 전하고 이들의 일본의 파트너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민족의식의 유지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현재 ‘라디오 일본’은 1일평균 37시간, 21종류의 언어로 뉴스, 해설, 일본소개, 음악, 오락, 스포츠, 일본어 입문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일본어에 의한 프로는 북미, 하와이, 남미의 일제인, 해외여행중인 일본인, 주재원, 비즈니스 맨 등 일본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벗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海外日系人協會 1997).

3) 간행물

재단법인 해외 일제인협회가 발족한지 만 10년을 맞아(1977년) 동협회는 「海外日系人」을 창간했다. 동지의 편집은 주로 해외 일제인신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종래 해외 일제인과 모국을 연결하는 공식회합은 매년 1회씩 열리는 해외 일제인대회가 유일의 것이었으나, 당시 해외 일제인협회와 해외 일제인신문협회와의 협의의 결과, 해외 일제인과 모국과의 교류, 상호이해를 한층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지를 계간지로 창간했다.⁸⁾

3. 일제인 귀국정책

가장 최근에 본격화된 또 하나의 일본의 海外日系人들에 대한 정책으로는 남미에 거주하는 일제인들에 대한 일본으로의 돈벌이를 위한 특별한 초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인의 돈벌이’(日系人の出稼き)라고 표현되는 남미들 중심으로 하는 해외 일제인들의 일본으로의 회귀 현상은 1990년에 이뤄진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약칭 ‘入管法’)개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⁹⁾ 이 개정 입관법에서는 일반외국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비숙련노동을 일제인들에게만 허용하는 법적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계기로 남미 일제인들의 일본으로의 귀국은 급증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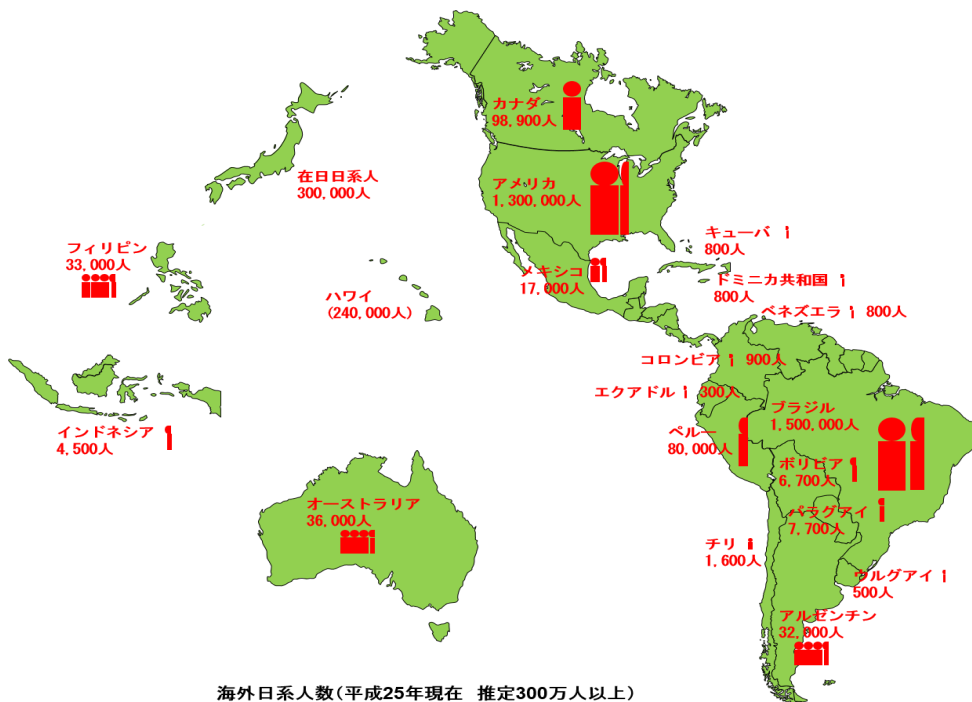
8) 해외에서 발행되는 일본어 미디어에 관해서는 田村紀雄(2008)을 참조.

9) 이 때의 입관법 개정 이전에도 브라질에 이민한 일본인 중에는 일본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다수 존재했고(1985년 현재 약12만명), 그들의 배우자나 자식(일제2세)에도 ‘일본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체류 자격이 부여되어 그들은 일본에서의 취업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다. 그러나 1990년의 입관법 개정은 일제2세의 배우자나 그 자식(3세)에게도 새로운 ‘定住者’로서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즉 입관법 개정 후에는 일제가 아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일제인이면 ‘정주자’로 체류 자격이 부여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입관법 개정은 단순한 입국관리 정책의 대대적인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이민정책의 커다란 지각변동이기도 했다(小畑郁 2012, 4).

10) 돈벌이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제브라질인’의 증가 경향의 지표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외국인 등록에 대한 통계를 보면, 1989년에는 14,528명이었던 것이 1990-56,429명, 1991년 -119,333명, 1992-147,803명 등으로 늘어나다가 2007년에는 316,967명으로까지 대폭 증가한다.

1990년 6월 실시된 ‘입관법’개정은 불법취로 조장죄의 벌칙이 고용주 측에 과해져, 외국인의 불법취업자를 단속케 된 한편, 일계인들에게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 자식으로 출생한 자 및 일본의 특별양자)’, ‘定住者(일본인의 손자 등, 일계2세 및 3세인 외국인)’라고 하는 취로를 포함한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이 부여되어, 합법적으로 단순노동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즉 지금까지는 일계인의 경우, 일본국적을 가진 이주1세나 이중 국적자들에게는 입국, 체류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외국적의 2세, 3세에게도 합법적인 취업의 길이 열렸다. 또 비 일계인이라고 할지라도 일계3세까지의 배우자인 경우, 일계인과 같은 특별한 체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입관법 개정은 일계인 이외의 불법취로외국인의 유입을 방지, 일계인을 합법적인 노동력으로 함으로써, 일본사회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渡辺雅子 編 1995, 20).

〈해외일계인 분포현황〉



海外日系人数(平成25年現在 推定300万人以上)

출처: 해외일계인협회. <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검색일 2014.09.05.)

1989년, 1990년의 숫자는 渡辺雅子 編(1995, 22). 1991년 이후 숫자는 일본입국관리국의 HP 통계정보 참조.

11) 사실상, 이들 일계인들에게는 직종제한 없는 취로가 인정되었다(山内一宏 2008, 139).

이렇게 하여 1989년에 14,528명이었던 브라질인의 외국인등록자수가 다음해인 1990년에는 56,429명, 91년에는 119,333명으로 급증하게 되며(近藤敏夫 2005, 1-2), 현재는 약 18만 여명의 일제 브라질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定住 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일본인의 브라질이민이 1백년간에 약13만 명인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금 브라질에서 일본으로의 돈벌이 이민자로 정주하고 있다.¹²⁾ 여하튼 이상과 같이,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고 하는 체류자격이 일제인의 합법적인 취로를 보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石田智恵 2009, 427-8).

4. 중국 잔류 일본인 자녀 귀국정책

과거 일제에 의한 만주국 성립을 계기로 추진되었던 일본인의 만주 이민정책 결과 대규모의 일본인이 만주로 이주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일본인들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귀국하지 못한 채 중국에 그대로 살고 있는 일본인의 문제를 소위 ‘중국 잔류고아·잔류부인 문제’라고 한다. 1972년, 일본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이들에 대한 귀국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1999년까지 일본에 영주귀국한 일본인은 총 6,041세대 1만 9,252명에 이르고 있다. 영주 귀국이 아닌 일시 귀국자를 합하면, 그 수는 약 3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1905년 이후 일본의 이민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이들 잔류자들의 귀국을 위해 1994년의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잔류 일본인의 귀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 출처: <http://ja.wikipedia.org>(검색일 2014.09.02)

〈표 6〉 중국 잔류방인의 연도별 귀국 상황

구분 연도	영 주 귀 국 자						일 시 귀 국 자					
	합계		잔류고아		잔류부인 등		합계		잔류고아		잔류부인 등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소화47	19	57	0	0	19	57	0	0	0	0	0	0
소화48	70	143	0	0	70	143	48	67	0	0	48	67
소화49	182	383	1	5	181	378	587	860	0	0	587	860
소화50	179	515	9	30	170	485	912	1,437	14	29	898	1,408
소화51	112	359	12	43	100	316	479	725	31	63	448	662
소화52	73	255	13	56	60	199	282	458	20	38	262	420
소화53	100	280	20	74	80	206	233	400	34	67	199	333
소화54	142	470	24	80	118	390	272	510	37	84	235	426
소화55	173	596	26	110	147	486	211	437	42	118	169	319
소화56	193	681	37	172	156	509	176	400	51	140	125	260
소화57	156	554	30	120	126	434	119	292	42	128	77	164
소화58	168	626	36	154	132	472	104	233	44	104	60	129
소화59	133	475	35	155	98	320	76	170	31	87	45	83
소화60	169	626	56	258	113	368	74	164	38	104	36	60
소화61	281	1,014	159	645	122	369	51	108	29	70	22	38
소화62	377	1,424	272	1,094	105	330	90	171	62	117	28	54
소화63	365	1,353	267	1,097	98	256	116	190	38	79	78	111
평성1 (1989)	343	1,174	218	831	125	343	112	138	25	38	87	100
평성 2	326	929	181	604	145	325	200	249	24	31	176	218
평성 3	278	750	145	463	133	287	139	167	13	18	126	149
평성 4	283	650	120	353	163	297	120	150	3	4	117	146
평성 5	318	638	115	285	203	353	145	196	17	22	128	174
평성 6	322	870	100	245	222	625	92	139	26	39	66	100
평성 7	399	1,229	91	259	308	970	128	220	54	96	74	124
평성 8	349	1,136	110	325	239	811	132	252	72	141	60	111
평성 9	240	914	108	407	132	507	119	207	67	118	52	89
평성10	160	622	94	380	66	242	84	147	59	99	25	48
평성11	108	440	65	266	43	174	66	119	36	63	30	56
평성12	23	89	18	73	5	16	17	26	10	14	7	12
합계	6,041	19,252	2,362	8,584	3,679	10,668	5,184	8,632	919	1,911	4,265	6,721

출처: 일본귀국자센터(http://www.kikokusha-center.or.jp/kikokusha/kiko_jijo/ chugoku/jijo_f.htm) (검색일 2000.08.13)

④ 2013년 현재, 약 6,600세대(가족을 포함한 인원은 약 2만여명)이 일본으로 귀국했으며, 아직도 2,3천명이 중국에 잔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V. 마치며

일본은 일찍부터 송출해 온 세계유수의 해외 이민 대국이었으며, 그러한 이민역사에서 이민 전기에는 이민지로부터 많은 배척과 차별을 받아온 적도 있기는 하나, 전후의 이민 후반부에서는 대체로 세계적으로 여러 이민지에 잘 적응하는 몇 안 되는 이민 송출 성공국 내지는 성공한 이민 집단으로 일본과 일본의 해외 이민들이 평가되고 있다.

명치 이래 오랫동안 일본은 해외에 이민을 보내면서도 이들 이민들에게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면서도 ‘일본인 의식’, ‘일본 혼’, ‘천황의 신민’이라는 정신자세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결과는 초기의 일본 이민들이 이민을 간 거주국 현지에서 ‘不同化 民族’으로 혐오당하고 배척당한 긴 역사가 있었다.¹³⁾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에서 배척당해 오던 일본 이민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 낸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의 해외 이민의 성공적인 전개를 만들어 낸 요인들로는 여러 가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해외 이민들이 이민을 간 거주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永住思想’과 또 무엇보다도 거주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獻民主義’ 등을 중심내용으로 한 ‘수입국 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¹⁴⁾

특히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일본 정부의 해외 이민들에 대한 수입국 우선주의, 즉 거주국으로의 현지화에 노력하여 이민 간 일본인들이 현지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동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민 성공의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온 결과 해외 일본인 사회는 크게 현지화의 정도를 높여 갔으며, 이에 따라 일본 이민들은 현지에서의 적응도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사회와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해가면서 그곳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착실하게 자리잡게 되고, 이들의 이민지에서의 역할과 위상도 나날이 제고되어 갔다.

13) 20세기 초 일본 이민을 제한하는 미국의 일련의 법률을 지칭한다. (캐나다, 호주,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도 배일이민법은 존재했다), 이 법률에 의해 일본인들은 귀화불능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이 일체 금지되었다. 일본 이민의 배척은 19세기말 일본 이민이 미국본토에 수천 명 밖에 없던시절부터 시작, 20세기가 되자, 칼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여러 주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중 대표적인 1924.7.1에 시행된 미국의 이민제한법이다. 이는 정확하게는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 또는 존슨-리드법(Johnson - Reed Act)으로 이 법률에서는 각국으로부터의 이민의 연간 수입 상한선을 1890년의 국세조사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각국 출신자들로 기준으로 그 2% 이하로 하는 것으로, 1890년 이후 대규모 이민이 시작된 동구, 남유럽, 아시아출신자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아시아출신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민을 금지하는 조항이 설계돼, 당시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일본인이 배제되게 돼, 일본에 충격을 가했다. 출처: <http://ja.wikipedia.org> (검색일 2014.09.08.).

14) 『歴史公論』(1978년1월호), 53.

현지화의 진척으로 해외 일본인 사회는 점차 일본 국적이 아니라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어를 모르는 일제인들이 늘어나는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고 또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전문적 분야에서 대단한 활동을 보이는 사람들마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¹⁵⁾

그러나 일본의 해외 이민 정책은 2천 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전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의 일본 이민과 그 후손들의 돈벌이를 위한 일본으로의 ‘U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이는 일본의 해외 이민 역사의 새로운 도전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남미 특히 브라질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일본인 자손들(대부분이 일본 국적이 없는 이민 후손들인 일제인과 그들의 배우자)이 대거 그들 선조들의 모국인 일본으로의 돈벌이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¹⁶⁾

1990년에 이뤄진 ‘入國法’개정으로 해외 일인(일제인)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본으로의 입국 러시와, 일본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의 대안으로 이들을 반기면서 해외 일제인들의 U턴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이민현상이 일본과 해외 일제인들에게 순기능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새로운 역이민이 일본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과 마찰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과는 뿌리가 같은 혈연적인 연계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일본과 일본문화와는 전혀 생소한 이방에서 생활해 왔던 이들의 일본체류는 일본사회는 물론 돈벌이하러 해외에서 이주해온 일제인들 모두에게 대단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인들은 새롭게 이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일제인들에게 자기들과는 이질적이라고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증폭시키고 있는가 하면, 일본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일제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반일적인 감정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민거리로 구체화되고 있는 일본으로 유입된 일제인(대부분 일제 브라질 인)들을 둘러싸고 일본인들과 일제인들 간에 점증되고 있는 이 갈등은 현재로서는 좀처럼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여부가 장기적으로는 향후 일본의 전반적인 재외동포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石田 智恵 2009).

15) <http://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ijyu/> (검색일 2014.09.08.).

16) 2013.12월 현재 재류브라질인(그 대부분이 브라질거주 일제인들)은 181,26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8467> (검색일 2014.09.08.).



- 조정남. 1999. 『日本の 民族問題』. 서울: 教養社.
- 外務大臣官房領事移住部(政策課)編. 『海外在留邦人數調査統計』.
- 日本外務省領事局政策課. 平成25年(2013). 『海外在留邦人數統計』(要約版).
- 鈴木讓二・若槻泰雄. 1975. 『海外移住政策史論』. 福村出版.
- 鈴木讓二. 1992. 『日本人の 出稼ぎ移民』. 平凡社.
- 兒玉正昭. 1992. 『日本移民史研究序説』. 溪水社.
- 前山隆. 1982. 『移民の日本回帰運動』. 日本放送出版協會.
- 総合研究開発機構. 1995. “日美關係におけるエスニシチイ.” 『NIRA 研究報告書, NO.940052』. 総合研究開発機構.
- 海外日系人協會. 1997. 『海外日系人』 40호.
- 田村紀雄. 2008. 『海外の日本語 メディア』. 世界思想社.
- 小畑郁. 2012. “入管法2009年改正と日本移民政策の‘轉換’.” 『法律時報』 84卷 12号.
- 渡辺雅子 編. 1995. 『共同研究 出稼ぎ日系ブラジル人(上)』. 明石書店.
- 山内一宏. 2008. “多文化共生社会の構築を目指して-外国人労働者受入問題.” 『立法と調査』 No. 275.
- 近藤敏夫. 2005. “日系ブラジル人の就労と生活.” 『社會學部論集』 제40호.
- 石田智恵. 2009. “〈日系人〉というカテゴリーへの入管法改正の作用.” 『Core Ethics』 Vol.5.
- 해외 일계인협회 <http://www.jadesas.or.jp>

● 투고일: 2014. 9. 11. 심사일: 2015. 1. 19. 게재확정일: 2015. 2. 5

Nikkeijin policy of Japan

Chung Nam Cho (Korea University)

The Japanese diaspora, known as nikkei (日系), are Japanese emigrants from Japan and their descendants that reside in a foreign country. Emigration from Japan first happened and was recorded as early as the 12th century to the Philippines, but did not become a mass phenomenon until the Meiji Era, when Japanese began to go to the Philippines, North America, and beginning in 1897 with 35 emigrants to Mexico. There was also significant emigration to the territories of the Empire of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however, most such emigrants repatriated to Japa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n Asia.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of Nikkei and Japanese Abroad, there are about 2.5 million nikkei living in their adopted countries. The largest of these foreign communities are in Brazil, the United States, Peru and the Philippines. Descendants of emigrants from the Meiji Era still hold recognizable communities in those countries, forming separate ethnic groups from Japanese people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most of these overseas Japanese repatriated to Japan. The Allied powers repatriated over 6 million Japanese nationals from colonies and battlefields throughout Asia. Only a few remained overseas, often involuntarily, as in the case of orphans in China or prisoners of war captured by the Red Army and forced to work in Siberia. During the 1950s and 1960s, an estimated 6,000 Japanese accompanied Zainichi Korean spouses repatriating to North Korea, while another 27,000 prisoners-of-war are estimated to have been sent there by the Soviet Union; see Japanese people in North Korea.

In the 1980s, with Japan's growing economy facing a shortage of workers willing to do so-called three 'K' jobs (きつい kitsui [difficult], 汚い kitanai [dirty], and 危険 kiken [dangerous]), Japan's Ministry of Labor began to grant visas to ethnic Japanese from South America to come to Japan and work in factories. The vast majority — estimated at roughly 300,000 — were from Brazil, but there is also a large population from Peru and smaller populations from Argentina and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recession as of 2009, the Japanese government has offered ¥300,000 for unemployed Japanese from Latin America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with the stated goal of alleviating the country's soaring unemployment. Another ¥200,000 is offered for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 to leave.

〈Key words〉 Japanese diaspora, nikkeijin (日系人), japanese emigrants from Japan, visas to ethnic Japanese from South America, Japanese from Latin America to return to their country